**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**

**포럼 비프 개최!**

**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가 ‘다시,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'라는 주제로 포럼 비프(Forum BIFF)를 개최한다.**

**중국 지아장커·한국 민규동 감독, 포럼 비프 기조발제자로 나선다**

**영화를 통한 사유와 통찰의 장, 2025 포럼 비프!**

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가 9월 18일(목)부터 21일(일)까지 나흘간 영상산업센터에서 포럼 비프를 개최한다. 이번 포럼은 ‘다시,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’를 화두로 산업**·**정책**·**비평**·**기술**·**교육을 아우르며 아시아영화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의 트렌드를 제시한다. 특히 동시대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지아장커 감독과 장르와 형식을 넘나들며 한국영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온 민규동 감독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포럼의 포문을 연다. 올해 포럼 비프는 총 4개 섹션, 9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아시아영화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.

**■ 섹션A.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 - 아시아영화의 두 갈래 이슈를 진단하다**

지아장커가 기조발제로 나서는 섹션 A ‘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’는 총 두 세션으로 나눠 포럼이 진행된다. 세션 **‘아시아영화, 국제공동제작의 새 챕터를 열다’**는 일본 아트하우스 영화를 통해 보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글로벌 협업 현황과 최근 국제영화제에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한국영화의 현주소까지, 국제공동제작이 던지는 창작과 산업 두 측면에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는다. 2025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‘아시아영화의 창’ 섹션에서 상영될 <르누아르>의 감독 하야카와 치에와 프로듀서 에이코 미즈노 그레이, <한국이 싫어서>의 장건재 감독, 중국**·**베트남**·**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국 영화제 프로그램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필립 쉐아가 발제자로 참여한다. 이어 두 번째 세션 **‘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, 삼키는가’**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확장으로 인한 명암에 대해 논의한다. 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『카피캣 킬러』를 제작한 필 탕 프로듀서와 영화연구자 박진희가 한국, 일본, 중화권, 동남아시아의 현황을 정밀 분석한다. 또한, 20년간 100여 편의 영화 배급과 마케팅을 이끌어온 이화배 대표와 법학자 황승흠 교수는 OTT가 촉발한 제도적 쟁점을 심층 토론한다.

**■ 섹션B. 한국영화를 구하라 - 상업영화부터 독립영화까지, 30년 성장의 명암 진단**

민규동 감독의 기조발제로 포문을 열 섹션 B의 첫 번째 세션 **‘1996 플래시백: 한국영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’**는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흐름에 대해 탐구한다. 씨네21 김성훈 디지털콘텐츠 본부장과 안시환 영화평론가, 한국영화 부흥기를 이끈 제작자 이준동과 차승재, <리볼버>의 제작자 한재덕, 그리고 주유신 영산대 교수가 참여해, 오늘의 위기 속 ‘포스트 박찬욱**·**봉준호’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해법을 모색한다. 이어 ‘**한국독립영화는 어떤 꿈을 꾸는가**’는 한국독립영화의 지속적인 구조적 위기와 제작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창의적 돌파구를 찾는 독립영화인들의 목소리와 그들 작품이 갖는 미학적 성과를 통해 한국독립영화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.

**■ 섹션C. 시네마의 미래: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**

올해 포럼 비프는 동서대학교, 한국영상자료원,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과 함께 공동주최 세션을 마련한다. 먼저 동서대학교와 함께하는 **‘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시각문화의 미래’**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애니메이션·영화·디자인 등 지역 기반 시각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의미를 창출하는지를 조망한다.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주최하는 **‘리부팅 한국영화’**는 고전영화 리마스터링과 사운드 복원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, 오늘날 시각효과 제작에 필수적인 영상 에셋 데이터 관리와 현장 활용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.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과 함께 마련한 **‘아시아 영상 교육의 미래’**에서는 한국과 아시아 각국 교육기관의 협력 사례를 통해 영화·미디어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, 그에 따른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. 각 세션에는 디즈니+ 시리즈 『파인: 촌뜨기들』의 강윤성 감독, <오페라>로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오른 에릭 오 감독, 데뷔작 <자서전>으로 베니스영화제 등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은 막불 무바락 감독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.

**■ 섹션D. 한국영화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지도 그리기**

한국영화계에서 자발적으로 연대한 단체들이 영화산업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에 나선다. 영화제정책모임의 **‘영화제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’** 세션에서는 영화제 지원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지난 정부의 지원 축소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영화제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논하기 위해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, <레이오버 호텔>의 최창환 감독 등이 패널로 나선다. 영화인연대 세션 **‘『멸종위기영화』 K-무비, 다음 10년을 위한 대화’**에서는 <장손>의 오정민 감독, 콘텐츠 추천 플랫폼키노라이츠 양준영 대표 등 영화인들이 참여해 산업 위기 극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. 두 세션은 위기 이후 한국영화의 재정비를 넘어, 향후 10년을 가늠할 좌표를 제시한다.

이번 포럼 비프는 영화를 둘러싼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, 아시아영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. 변화의 시대 속 영화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될 올해 포럼 비프는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오프라인 행사로만 진행된다.

**[2025 포럼 비프 일정 안내]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일자** | **시간** | **세션명** | **주최** | **장소** |
| 9/18  (목) | 13:00 ~  15:30 | 2025 포럼 비프 개회식 |  | 영상산업센터  11층 컨퍼런스홀 |
| [섹션 B] 한국영화를 구하라  [세션 1] 1996 플래시백: 한국영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|  |
| 16:30 ~ 18:30 | [섹션 A]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 영화  [세션 1] 아시아영화, 국제공동제작의 새 챕터를 열다 |  |
| 9/19  (금) | 10:00 ~ 12:30 | [섹션 C] 시네마의 미래: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  [세션 1] 리부팅 한국영화 | 공동주최: 한국영상자료원 |
| 13:30 ~ 16:30 | [섹션 C] 시네마의 미래: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  [세션 2]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시각문화의 미래 | 공동주최: 동서대학교 |
| 17:00 ~ 19:00 | [섹션 D] 한국영화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지도 그리기  [세션 1] 영화제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 | 주최: 영화제정책모임 |
| 9/20  (토) | 10:30 ~ 12:30 | [섹션 A] 연대를 꿈꾸는 아시아영화  [세션 2] 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, 삼키는가 |  |
| 14:00 ~ 17:00 | [섹션 C] 시네마의 미래: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영화교육  [세션 3] 아시아 영상 교육의 미래 | 공동주최: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|
| 9/21  (일) | 13:00 ~ 15:30 | [섹션 D] 한국영화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지도 그리기  [세션 2] 『멸종위기영화』 K-무비, 다음 10년을 위한 대화 | 주최: 영화산업 위기극복  영화인연대 |
| 16:00 ~ 18:30 | [섹션 B] 한국영화를 구하라  [세션 2] 한국독립영화는 어떤 꿈을 꾸는가 |  |

▶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| 9월 17일(수) - 9월 26일(금)

▶ 제20회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 | 9월 20일(토) - 9월 23일(화)